

# 호랑이 군단, 불방망이 못지 않게 마운드도 강했다

## KIA타이거즈 2024 정규시즌 결산

<3> 탄탄했던 철벽 마운드

평균자책점·세이브 선두… 홀드 2위  
피안타·출루 허용률도 상위권 위치  
투수진 줄부상에도 대단했던 위력

올해 KIA타이거즈는 팀 타율과 안타, 타점, 득점에서 모두 선두를 휩쓸며 누구도 거를 수 없는 지뢰밭 타선을 구축했고 평균자책점과 세이브 선두, 홀드와 피안타, 출루 허용률 등이 상위권에 오르며 탄탄한 마운드도 일궈냈다.

KIA는 올 시즌 팀 평균자책점에서 선두에 올랐다. 홀드는 2위, 세이브는 선두를 차지하며 팀 승리를 지켜냈고 피안타와 출루 허용률도 세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했다.

야수진의 기록을 종합하면 화끈한 공격전을 펼쳤다는 의미가 됐지만 투수진을 살펴볼 때는 짝물 수비를 펼쳤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발진부터 필승조, 추격조까지 모든 투수들이 제 몫을 한 셈이다.

KIA는 팀 평균자책점이 4.40으로 선두에 올랐다. 올 시즌 타자들이 강세를 보



KIA타이거즈가 제임스 네일(왼쪽부터)과 정해영을 각각 평균자책점과 세이브 타이틀 홀더로 배출했다. 전상현(오른쪽)은 두 자릿수 승리와 홀드를 챙겼다.

이고 투수들이 약세를 보이는 타고투저의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4.50 이내로 진입한 팀이다.

KIA는 141홈런(6위)과 539볼넷(8위), 85사구(8위)를 허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안타와 출루 허용률을 낮추며 평균자책점을 깎았다. 1365개의 안타를 허용하며 두산베어스(1332피안타)와 SSG랜더스(1341피안타)에 이어 세 번



째로 적었고 출루 허용률도 1.48로 삼성 라이온즈(1.45)와 KT위즈(1.47)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이처럼 탄탄한 마운드를 구축하며 87승을 챙긴 가운데 89홀드와 44세이브를 기록한 계투진도 승리를 지키는데 공을 세웠다. 홀드는 삼성(116홀드)에 이어 2위, 세이브는 두산과 삼성(이상 41세이브)을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올랐다.



KIA타이거즈 제공

제임스 네일과 양현종, 전상현은 두 자릿수 승리를 챙기는데 성공했다. 선발진이었던 네일이 12승, 양현종이 11승을 책임졌고 불펜진에서 전상현이 10승을 보태며 33승을 합작했다.

두 자릿수 홀드를 기록한 선수도 네 명이나 된다. 19홀드를 챙기며 승리와 홀드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전상현을 필두로 박도규와 장현식이 각각 16홀드, 최지

민이 12홀드를 추가하면서 철벽 계투진을 구축했다.

KIA는 투수진에서 두 명의 타이틀 홀더도 배출했다. 정해영은 홀로 31세이브를 책임지며 타이거즈 소속으로는 1998 시즌 임창용(34세이브) 이후 26년 만에 세이브왕이 됐고, 네일은 평균자책점 2.53을 기록하며 NC다이노스의 카일 하트(2.69)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 모든 성과가 부상 변수를 이겨낸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KIA는 올 시즌 유독 마운드에서 부상 변수를 많이 겪었다.

개막 선발 로테이션에서는 윌 크로우를 시작으로 이의리와 윤영철, 제임스 네일이 차례로 이탈하며 양현종이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다.

네일의 대체 선수로 합류한 에릭 스트루트도 부상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나는 등 선발진이 초토화됐으나 황동하와 김도현이 새로운 선발 카드로 떠오르며 빈자리를 대신했다.

또 임기영과 김대유, 이준영, 정해영, 최지민, 장현식 등 불펜 자원들도 크고 작은 부상과 부진에 시달렸지만 서로가 서로의 공백을 채워줬고 박도규와 김기훈 등 새로운 얼굴들이 주축으로 떠오르며 힘을 발휘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합숙 개시’ KIA 이범호 감독 “최상의 컨디션 구축할 것”

14일부터 경기장 인근 호텔  
전체 대관 등 지원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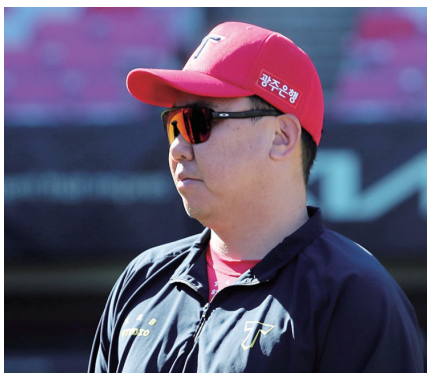
올해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 짓고 한국시리즈대비 훈련에 돌입한 KIA타이거즈가 출퇴근에서 합숙 제제로 변경한다. 한국시리즈 1차전을 일주일 남겨놓은 만큼 최상의 컨디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범호(사진) 감독은 1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한국시리즈 대비 연습경기 2차전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이 확실치 용이할 것”이라며 “경기장에서는 조절하는 게 아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KIA 선수단은 이날부터 경기장 인근의 한 호텔에서 묵으며 합숙 훈련을 시작한다. KIA 구단은 호텔 전체를 대관하며 외부인과 접촉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 최상의 지원으로 뒷받침에 나섰다.

이 감독은 “중고참 선수들은 육아에서 벗어난다. 잠도 푹 자고 혼자 지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며 “선수들끼리 모여 한국시리즈를 어떻게 치를지 대화를 나눌 것이다. 고참들이 젊은 선수들한테 얘기하면서 긴장이나 걱정도 덜어줄 거고 팀이 뭉쳐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감독은 합숙 기간에도 틈틈이 삼성 라이온즈와 LG트윈스의 플레이오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상대에 대한 분석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시리즈 상대 팀이 결정되면 엔트리와 선발진 구성도 완료될



전망이다.

그는 “어제 1차전을 보면서 오늘 2차전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했다”며 “삼성 컨디션이 좋고 타자들 방망이가 잘 터졌다. 늦게 터지는 것보다 빨리 터지는 게 낫다는 생각과 선수들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좋으면 우리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단기전인 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한 팀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기도 하다. 삼성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구자욱과 김영웅, 르윈 디아즈의 대포를 앞세워 LG에 10-4 완승, 기선을 제압했고 이 감독도 내심 끝까지 접전을 펼치길 바라고 있다.

이 감독은 “LG가 확실히 힘이 떨어져 보였고 삼성은 쉬고 나왔으니 체력적으로 유리했다”며 “경기 감각은 첫 타석 들어가서 안타 치고 나면 바로 살아나는 거니까 문제가 안될 것 같다. 플레이오프를 5차전까지 하고 와야 저희도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이런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규빈 기자

## 광주시청 고승환·이재성, 전국체전 육상 200m 금·은

대회 新… 다관왕 레이스 시동  
400m·혼성1600m계주 금 도전

‘단거리 명가’ 광주시청 육상팀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200m 금·은메달을 휩쓸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육상 일반부와 대학부 각각 4관왕을 차지했던 고승환(27)과 이재성(23)이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다시 한번 다관왕 시동을 걸었다.

고승환은 14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자 200m 결승에서 참가 선수중 가장 빠른 20초 51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함께 출전한 이재성도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20초 53을 기록, 간발의 차이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서민준(충남 서천군청·21초 04)이 차지했다.

## 광주체고 문건영, 기계체조 3관왕

개인종합·평행봉·철봉 금  
안마·도마 銀, 마루운동 銅

‘한국 기계체조 유망주’ 문건영(광주체고 3·사진)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기계체조 3관왕을 차지했다.

문건영은 13~14일 경남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기계체조 남자 18세이하부에 출전해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지난해 전국체전 사상 첫 7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문건영은 이번 체전에서 7관왕을 노렸지만 지난 5월 제11회 시니어



광주시청 고승환(오른쪽)과 이재성.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지난달 열린 제35회 KTF 전국실업단 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도 나란히 금·은메달을 독식했던 고승환과 이재성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대회신기록(중전 20초 55)을 갈아치우며 다시한번 메달레이스를 펼쳤다. 고승환과 이재성은 예선에서 각각 20초 82, 21초 10을 기록하고 결승에 올랐다.

지난해 전역후 광주시청에 입단, 전국체전에서 4관왕(200m·400m계주·혼성 1600계주·남자 1600계주)을 차지했던 고승환은 올해도 200m 1인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금메달로 다관왕 레이스를 예고했다.

지난해 전국체전 대학부 4관왕(100m·200m·400m계주·1600m계주) 이재성은 올해 광주시청에 입단, 실업선수로의 첫 전국체전에서 은메달로 신고식을 치렀다.

고승환과 이재성은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김국영과 호흡을 맞춰 400m 계주에서 한국 타이 기록인 38.47초를 수립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15일 베테랑 스프린터 김국영과 호흡을 맞춰 남자 400m 계주에 출전, 기록과 메달에 도전하며 혼성 1600m 계주까지 금메달도 노린다. 또 16일은 남자 1600m 계주까지 도전한다.

최동환 기자



기계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 도마 종목 착지 과정에서 다친 발목 부상 여파로 3관왕에 만족해야 했다.

문건영은 13일 기계체조 마루·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등 6개 종목 예선 점수를 합산한 개인종합에서 82.466점을 획득하며 첫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건영은 14일 종목별 결승에서 철봉(13.650점)과 평행봉(14.325점)에서 각각 1위에 오르며 3관왕에 올랐다.

도마 결승에서는 13.563점을 기록, 안대건(대구체고·13.600점)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고, 안마 결승에서도 13.150점으로 김승희(포철공고·13.175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마루 결승에서는 차예준(인천체고·14.025점)과 안대건(13.775점)에 이어 13.625점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링 결승에서는 11.325점으로 8위에 그쳤다.

문건영은 경기 후 “최선을 다했지만 부상 여파로 부담을 느껴 완벽한 착지 기술을 구사하지 못해 7관왕을 놓쳤지만 3관왕에 만족한다”며 “체전 이후 곧바로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는데 발목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해 태극마크를 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동환 기자